

도내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난립

부지면적 1만㎡와 30호 미만은 지자체 승인 필요 없어... 주차난 등 우려

“최근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들이 개발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집단 짓다 보니 이른바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수습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도내 한 부동산 업계관계자의 지적이다.

최근 도내에서도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붐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원주택단지는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속 보금자리와 텃밭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조성되고 있다.

현재 전주시 중인동과 완주군 상관면 등 행정구역과 인접한 지역에만 3~4개 업체가 10가구 미만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등 택지분양과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주택부지면적이 1

만㎡와 주택호수가 30호 이상인 전원주택단지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대지 조성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는 그 대상이 안된다는 것.

즉, 민간사업자는 손쉽게 개발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등을 통해 지어지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비해 전원주택단지나 다가구주택은 별다른 제한이 없이 신속 가능해 주거 환경 악화의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중인동 한 다가구주택단지 경우 이면도로에 들어서 예정으로 주차난 등 정주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지역은 도로정체 우려가 제기되는 지역으로서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계획적인 신속이 필요한 곳이다.

농촌 마을과 떨어진 독립가족 형태로 조성되는 전원주택단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업허가가 쉽다보니 진입로 확보 장, 상하수도설치, 환경오염 등 각종 민원 발생 우려도 제기된다.

게다가 행정 역시 대규모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 평가 등 사업규제가 가능하지만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는 정확한 현황조사 인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한 다가구주택 개발도 문제지만 전원주택 단지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훼손된 채 공사가 중단, 장기간 방치되면 생태환경이 파괴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며 “주변 여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질차상 문제가 없다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행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프렌치 위크에 초대합니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모델이 다양한 프랑스 막거리를 즐길 수 있는 '프렌치 위크' 행사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북 민간아파트 평균분양가 소폭 상승

4월대비 0.09% 올라

전북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 전북 민영 아파트 분양가는 m²당 평균 194만5,000원으로 전월 190만9,000원 대비 0.09% 상승했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60㎡ 이하는 190만9,000원으로 4월 대비

9,000원이 올랐다. 또 60㎡초과 85㎡ 이하는 195만5,000원으로 4월 191만 6,000원 대비 3만 9,000원이 올랐다.

반면에 102㎡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는 232만2,000원으로 4월 238만 원 대비 5만8,000원이 감소했다.

한편 수도권 분양가는 m²당 평균 429만5,000원으로 4월대비 1.63% 올랐고, 4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평균 287만1,000원으로 0.12% 상승했다.

/신광영기자

과일믹스된 주류 '하이트 망고링고' 출시

하이트진로는 오는 23일 신개념 주류 과일믹스 신제품 '하이트 망고링고'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과일믹스는 기존의 과일 맛의 과일리큐르, 탄산주 등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카테고리 제품으로 천연과즙을 함유한 저도주다.

이번에 선보이는 망고링고는 천연 망고과즙(2.3%)이 함유된 알코올 도수 2.5도의 저도주로, 망고의 달콤

하고 상큼한 맛이 청량감과 조화를 이뤄 부드러운 목넘김을 자랑한다.

하이트진로는 망고의 달콤한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천연 과즙 함유량과 알코올도수를 연구해 적용했다.

하이트진로는 소비자들 직접 음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인진수 기자

전북은행, 지역사회공헌 나눔 협약 맺어

전북이벤트MC협회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본점 9층 회의실에서 전북이벤트MC협회(회장 임호영)와 지역사회공헌 나눔 협약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전북은행에서 도내 소외계층 이웃들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공헌 사업에 전북이벤트MC협회에서 행사사회 전문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전북이벤트MC협회는 앞으로 전북은행의 다문화가정 온가족친정 나눔, 사랑한 가득 주막밥, 어버이날 孝(효) 콘서트, 사회복지사 힐링 Day 등 지역공헌사업에 참여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 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이벤트MC협회 임호영 회장은 "회원들의 동의와 참여로 이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재미와 기쁨을 전달하며 전북은행의 사회공헌사업과 시너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전북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핵심전략 공유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현준)는 16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대회의실에서 '전북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전북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조합의 역량강화 ▲협동조합 중심

의 중소기업 공동R&D 활성화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재정기반 확대 및 신설조합 보육을 통한 자체 역량강화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과평가를 통한 건전성 제고 등을 공유했다.

이을러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에 대한 스마트화 사업 지원요건, 지원규모, 지원분야와 범위, 사업절차와 일정 등을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 관계자

는 "그 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이 협동조합 운영·감독 등 관리 측면에서 주로 운영되었다면 이제는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육성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협동조합도 변화된 정책에 맞춰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조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가구·안경점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가구·안경 등 소매업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류용 가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등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7월 1일 이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엔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가 약 7만50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민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